정신문화연구 2009 봄호 제32권 제1호(통권 114호) pp. 27~55.

研究論文

『한국 구비문학 대계』 음성자료 전사 반영의 실태와 보유편 집성의 필요

김 태 환*

Ⅰ. 서론: 음성자료의 처리 문제
Ⅱ. 음성자료 전사 반영의 실례 분석
Ⅲ. 미전사 음성자료의 성격과 가치
Ⅳ. 결론: 보유편 집성의 필요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서론: 음성자료의 처리 문제

우리의 구비문학 조사 사업은 현장에서 채록한 음성자료를 문자로 전사하여 개별 작품의 형태로 기록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던 관계로, 이러한 작업에 저본으로 쓰였던 음성자료를 사후는 도리어 소홀히 여겨서 20년 세월을 고스란히 풍화에 맡겼다. 조사의 기본 방향과 목표가 음성자료를 구축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것이니, 조사자로 하여금 조사보고서와 함께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녹음테이프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는 했지만, 일찍이 이것을 음성자료의 성질과 조리에 맞도록 처리하여 활용할 계획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에 조사 사업을 주관한 조사위원회의 입장이 다음과 같았다.

> 구비문학은 민속, 음악, 문학 등 여러 분야의 공동관심사이기는 하되 문학적 측면에서 조사·연구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음악이나 기능의 조사는 문학 텍스트의 이해를 위한 보조조사로서 행해져야 한다.[1)]

*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시가미학 전공(suri4w@hanmail.net).

여기서 말하는 '문학적 측면에서 조사·연구한다'가 만약에 '문학 텍스트(작품)의 수집'을 뜻하기로 했다면, 이러한 입장은 제보자의 음성이 그 자체로 가장 우월한 하나의 '텍스트(작품)'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의 기록물이라는 인식이 마치 결여되어 있는 듯하여 아쉬움을 남긴다. 매체의 발달 수준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당시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이 이미 채록된 음성자료의 가치를 짐짓 무시해도 좋을 만한 현실적 배경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구비문학의 여러 개별 작품은 어디까지나 일반 민중에 속하는 개인의 기억에 잠재하고 개인의 음성을 통하여 발현하는 존재다. 따라서 그것이 모종의 계기에 말미암아 발현하는 바의 구연 상황과 그 음성이야말로 구비문학의 정체에 가장 가깝다. 일상에 파묻혀 유동하는 이것을 조사자의 안목에 정지시켜 문자로 전사하는 것은 학술상의 관찰과 분석을 위하여 거의 불가피한 과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이 전사된 문자를 녹음된 음성보다 더 중시해야 하는 학술적 요구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시에 현장에서 채록한 음성자료 일체를 적절히 처리하여 학계와 일반 대중의 요구에 닿도록 활용하는 작업이 새삼 시급해진 터인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는 저절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의 몫이 되었다. 부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소중한 음성자료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자각은 이내 실효를 거두어, 1998년 1차 정보화 작업을 통하여 녹음테이프 1,059개 분량의, 2002년 2차 정보화 작업을 거쳐서 녹음테이프 1,030개 분량의 음성자료가 전자정보로 전환되었다. 2003년 이후는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에 수록된 개별 작품과 그 음성자료를 하나의 단위로 연결하여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페이지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보화 작업은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의 개별 작품에 대응하는 바의 음성자료를 본편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결부시킨 데 머물러, 당시에 현장에서 채록한 음성자료 전체를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과 구별되는 독립적 기록물로 정립시킬 만한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에 기록된 음성자료 전체를 개별 단위에 따라 모두 분절시켜 각각의 개체로 분

1) 徐大錫, 「調査의 計劃과 經過」, 『口碑文學』, 6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1), 104쪽.

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분리된 각각의 개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히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것은 마땅히 구비문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별도의 연구 조직이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처럼 전자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녹음테이프에 채록된 음성자료의 개별 단위와 이것을 전사하여 책으로 출간한『한국구비문학대계』각권의 개별 작품이 그 수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중요한 소득의 하나다.[2] 작업을 담당한 인문정보학연구실의 기전사 목록에 따르면, 2002년 2차 정보화 작업의 대상이 되었던 녹음테이프 1,030개는『한국구비문학대계』본편 32권 분량에 대응하는 바로서 음성자료의 총량이 6만 1,800분 가량에 이르되, 여기서 문자로 전사되어 본편에 수록된 분량은 4만 2,348분에 그쳤다. 나머지 1만 9,452분은 미전사 상태로 남았다.

그러면 비율이 3.15할에 이르는 이것은 어째서 문자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배제되고 말았던 것인가? 자료가 온전하게 채록되지 못해서 배제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자료의 음질이 청취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서 배제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설화와 민요·무가로 그 대상을 국한했던 바의 조사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배제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는 모두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삼아 몇 개의 녹음테이프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전체를 들어본 바로는, 일정한 필연성이 없이 배제시킨 음성자료도 많은 수량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에 이루어진 전사 작업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요구에서『한국구비문학대계』1-1을 집성하는 데 활용된 녹음테이프 40개 분량의 음성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당시에 이루어진 전사 작업의 실례를 검토하고, 아울러 미전사 음성자료 각각의 성격과 가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선은『한국구비문학대계』보유편 집성의 당위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당시의 음성자료 일체를 독립적 기록물로 정립시킬 필요성을 진단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2) 이밖에,『한국구비문학대계』본편을 집성하는 작업에 전혀 활용된 부분이 없는 녹음테이프도 11개가 수집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녹음테이프에 적힌 당시의 일련번호에 따르면, 이것은 모두 경북과 경남의 조사 결과에 속한다. 일련 번호: 봉화_9; 경주_5, 안강_6; 밀양_8, 무안_5; 울산_8; 진주_4; 거제_3, 거제_7, 둔덕_7, 장목_7.

II. 음성자료 전사 반영의 실례 분석

1. 수량 분석

차례의 첫머리에 놓인『한국구비문학대계』1-1은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및 수유동 일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성된 것이다. 조사는 조희웅과 이영성·양혜정이 맡았다. 조사 회수는 1978년 3월 11일부터 그 해 7월 3일까지 총13회에 이르고, 주기는 대체로 3일 간격과 1주일 간격을 보인다.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어진 6회는 미아 제1~7동을 조사했고, 5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진 7회는 수유 제1~5동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양면에 1시간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로 40개 분량이 나왔다. 조사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다.

> 미아·수유 양동에서 얻은 총 소득은 민요 21편(미아 18편, 수유 3편), 설화 151편(미아 41편, 수유 110편)이다. 물론 이 숫자는 이 책에 채록되어 있는 숫자만을 들어본 것이고, 채록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여 필자 임의로 제외시킨 자료까지 합한다면 좀 더 많은 수에 이를 것이다. 특히 민요의 경우는 기능요 위주로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원칙이 있었으므로 상당수의 비기능요가 녹음기 테이프에는 그대로 들어 있지만, 채록에는 빠지게 되었음을 밝혀 둔다.[3]

당시에 조사자가 손수 작성한 이 개요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첫째, 조사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녹음테이프 속에는 조사자가 임의로 전사하지 않은 음성자료가 많든 적든 간에 확실히 들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조사 원칙 가운데 특히 민요에 관한 규정은 오로지 기능을 강조한 데서 적잖이 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사자의 이른바 기능요와 비기능요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용어다.

가요의 구성 요소를 사설과 기능과 선율로 구별하는 견지에서 말하면, 사설이 우세한 것과 기능이 우세한 것과 선율이 우세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대부분의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韓國口碑文學大系』, 1책 1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2~13쪽. 이하의 각주에서 이 총서를 인용할 때는 '『대계』, 1-1'과 같이 줄여서 적는다.

민요는 기능이 우세한 데 집중되게 마련이다. 이것을 기능요로 본다면, 여타의 민요는 비기능요에 소속될 것이다. 그런데 조사할 주요 대상을 강조하는 정도에서 훨씬 벗어나, 이러한 구분을 지나치게 적용하게 되면서 문제를 낳았다.

실제로 상당수의 비기능요를 조사자가 일부러 전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사설이 우세한 것과 선율이 우세한 것에 속하는 다수의 민요가 거의 다 버려졌음을 뜻한다. 예컨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가객에 의하여 제작되고 전승되던 판소리 단가나 잡가 등의 여러 가곡이 민간에 전파되어 거의 민요나 다름이 없게 불리던 것들을 전사 대상에서 모두 배제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기전사 목록에 따르면,『한국구비문학대계』1-1을 집성하는 데 활용된 녹음테이프 40개 가운데 문자로 전사되어 본편에 반영된 음성자료는 모두 28시간 30분 분량에 이른다. 따라서 11시간 30분 가량이 미전사 부분에 해당하는 셈이다. 비율은 전체의 2.87할에 이른다. 그런데 이 기전사 목록은『한국구비문학대계』1-1에 수록된 개별 작품의 첫 문장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 문장이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음성자료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미전사 부분의 실제 분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미전사 부분의 실제 분량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첫째, 각각의 개별 작품과 그 구연 상황을 통틀어 하나의 개별 단위로 보는 관점에서 음성자료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해야 마땅할 것이고, 둘째,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끼어들게 마련인 여러 가지 잡음과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심으로 어느 것이든 다 수습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음성자료만 미전사로 판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표 1>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가운데 도봉구 미아동에서 채록한 음성자료 전체를 개별 단위에 따라 분절시켜 가면서 각각의 지속 시간을 분류하고 누계하여 얻은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잡음은 조사자와 제보자의 사이에 주고받은 담화, 제보자의 선친이나 지인의 지인을 발원지로 하는 바로서 조사 대상에 넣기 어려운 실화, 제보자가 구연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기억을 놓쳐서 녹음도 그렇게 실패로 돌아간 설화나 민요의 자투리, 조사자가 녹음테이프 부본을 재활용하면서 삭제로 처리한 자투리, 녹음테이프 부본을 재활용하면서 미처 삭제로 처리할 겨를이 없이 중복된 설화나 민요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공백은 당연히 아무 음성도 기록되지 않고 공회전으로 지속된 곳이다.

<표 1> 도봉구 미아동 채록 음성자료 성분 분석

구 분	기전사	미전사	잡 음	공 백	합 계
시 간	7:03:07	3:38:14	1:09:20	0:59:53	12:50:34
(초)	(25,387)	(13,094)	(4,160)	(3,593)	(46,234)
백분율	54.90	28.32	8.99	7.77	100

도봉구 미아동에서 채록한 음성자료는 전체가 양면에 1시간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테이프 12.5개 분량에 이르되, <표 1>에 나타난 시간의 합계는 20분 정도가 넘치게 나왔다. 까닭은 각각의 녹음테이프가 저절로 1분 안팎의 여유를 가지는 데 있었다. <표 1>의 수치에 따르면, 미아동에서 채록한 음성자료 전체에 있어서, 기전사 분량은 5.49할에 이르고, 미전사 분량은 2.83할에 이른다. 그러니 미전사 부분의 실제 분량은 이 둘을 더해서 얻은 값으로 다시 2.83할을 나눈 값이다. 결과는 3.4할이다. <표 2>는 이러한 미전사 부분의 개별 단위와 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의 <11_06>과 <11_08>는 중간에 49초 동안의 공백을 가지게 되면서 양분된 것이고, <12_09>와 <13_01>는 녹음테이프를 교체하는 동안에 전후로 분단된 것이니, 마땅히 하나의 개별 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표 2>에 나타낸 미전사 부분의 개별 단위는 37개가 아니라 35개다. 이것을 세분해서 말하면, 민요가 26편으로서 1시간 14분 분량을 차지하고, 설화가 9편으로서 2시간 24분 가량을 차지한다. 민요의 경우는 완편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된 3편을 함께 집계에 넣었다. <09_11>은 이미 구연된 부분의 가치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고, <04_06>과 <08_09>은 또한 사설의 길이가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길었다.

본고의 말미에 붙이는 <별표 1>은 이상과 같은 분석의 기초를 이루는 바로서, 도봉구 미아동에서 채록한 녹음테이프 12.5개 분량의 음성자료 전체를 개별 단위에 따라 분절시켜 가면서 각각의 내역과 위치를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민요의 제목은 대개가 음성자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설화의 제목은 인물과 사건의 관련 양상이 잘 드러나도록 적절히 만들어 붙였다. 그리고 <별표 2>는 <별표 1>에 상응하는 부분의 기전사 목록을 가져온 것이다.

종합해 보건대, 도봉구 미아동에서 채록한 음성자료는 전체가 12시간 50분에 이르되, 실제로 유효한 성분은 잡음과 공백을 덜어 내고 기전사 부분과 미전사 부분을 한데 더한 10시간 41분이다. 여기서 미전사 부분은 유효한 성분의 3.4할을

<표 2> 도봉구 미아동 채록 음성자료 미전사 목록(전량)

번 호	구 분	기 점	종 점	지 속	제 목
01_03	민요	0:18:52	0:20:02	0:01:10	모심기노래 (1)
01_09	민요	0:46:50	0:47:38	0:00:48	노랫가락 - 충신은 만조정하고
01_10	민요	0:47:38	0:48:28	0:00:50	한강수타령
01_11	민요	0:48:28	0:49:53	0:01:25	육자배기 (1)
02_01	설화	0:00:30	0:22:39	0:22:09	장한영을 살린 점괘
03_04	민요	0:05:34	0:06:16	0:00:42	노랫가락 - 득주하면 난득우요
03_06	민요	0:12:29	0:13:47	0:01:18	노랫가락 - 천지로 장막을 삼고
04_02	민요	0:08:18	0:10:42	0:02:24	부모은공가
04_06	민요	0:19:10	0:32:31	0:13:21	춘향가 (중단)
04_07	민요	0:32:31	0:35:57	0:03:26	창부가
04_08	설화	0:35:57	0:50:24	0:14:27	태조 후처 강대비 이야기
05_02	민요	0:03:20	0:06:09	0:02:49	사부은공가
05_04	설화	0:27:57	0:37:21	0:09:24	이순신을 사모한 구렁이 처녀
05_06	설화	0:50:38	1:00:52	0:10:14	임경업의 소년 시절
07_04	설화	0:47:07	0:57:45	0:10:38	노름꾼 아들이 노름 끊은 사연
07_05	민요	0:57:45	0:59:32	0:01:47	청춘가
08_05	설화	0:25:47	0:39:50	0:14:03	강도 이웃 죽인 정상
08_08	민요	0:42:53	0:46:17	0:03:24	초한가
08_09	민요	0:46:17	0:50:43	0:04:26	심청가 (중단)
09_02	민요	0:08:35	0:09:49	0:01:14	성주풀이 (2)
09_03	민요	0:09:49	0:13:02	0:03:13	정선아리랑
09_05	민요	0:15:13	0:18:09	0:02:56	동네 울산 큰애기
09_06	민요	0:18:09	0:18:59	0:00:50	밀양아리랑
09_09	민요	0:24:53	0:26:19	0:01:26	노랫가락 - 앞 강에 뜬 배는
09_11	민요	0:30:28	0:31:29	0:01:01	청년학도가 (중단)
10_03	설화	0:09:16	0:14:09	0:04:53	늦둥이 아들의 똑똑한 유서 풀이
10_04	민요	0:14:09	0:17:04	0:02:55	시조 - 월정명 월정명커늘
11_01	민요	0:00:29	0:05:47	0:05:18	유람가
11_02	민요	0:05:47	0:11:43	0:05:56	유산가
11_06	민요	0:28:30	0:30:37	0:02:07	숫자풀이 (전반)
11_08	민요	0:31:26	0:36:26	0:05:00	숫자풀이 (후반)
11_12	설화	0:50:52	0:58:59	0:08:07	연정을 품은 한 중의 일장춘몽
12_01	민요	0:00:43	0:02:16	0:01:33	옛날 곡조 아리랑
12_06	민요	0:27:00	0:28:20	0:01:20	양산도
12_08	민요	0:31:43	0:33:23	0:01:40	논매기노래 (4)
12_09	설화	0:33:23	1:02:24	0:29:01	고아 장개필의 귀향 (전반)
13_01	설화	0:00:08	0:21:07	0:20:59	고아 장개필의 귀향 (후반)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은 분량이 아니다. 여기에 채록된 개별 작품의 수량도 적지 않지만, 작품의 가치를 고려할 때에 더욱 그렇다. 민요 26편은 중단된 3편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한국구비문학대계』 1-1에 수록된 21편보다 많은 수량이 남는다. 설화 9편도 소홀히 여길 수량은 아니다.

<표 3> 도봉구 수유동 채록 음성자료 미전사 목록(일부)

13_03	민요	0:31:29	0:34:24	0:02:55	경기오돌또기
13_04	민요	0:34:24	0:38:45	0:04:21	수심가 (장가)
13_05	민요	0:38:45	0:41:16	0:02:31	수심가 (단가)
13_06	민요	0:41:16	0:43:46	0:02:30	배따라기 (중단)
13_07	민요	0:43:46	0:45:59	0:02:13	흥타령
13_09	민요	0:46:18	0:47:50	0:01:32	성주풀이 (3)
13_10	민요	0:47:50	0:50:03	0:02:13	만담청춘가곡조
16_04	민요	0:42:20	0:45:57	0:03:37	육자배기 (2)
16_05	민요	0:45:57	0:47:22	0:01:25	농부가
20_01	설화	0:00:16	0:26:40	0:26:24	이항복과 김유의 인연
26_05	설화	0:27:34	0:32:04	0:04:30	사금갑
33_01	민요	0:00:40	0:02:45	0:02:05	모 짓는 소리
33_03	민요	0:03:57	0:08:40	0:04:43	죽장망혜
33_05	설화	0:12:26	0:14:24	0:01:58	기름 강아지로 호랑이 잡은 포수
38_03	설화	0:17:25	0:33:48	0:16:23	판관 아들과 군수 딸의 연분
38_04	설화	0:33:48	0:38:25	0:04:37	조선의 이인 부자

그런데 이상의 분석은 그 대상이 도봉구 미아동에서 채록한 음성자료에 국한되어 있는 까닭에 이로써 『한국구비문학대계』 1-1의 전사 실태를 충분히 개략할 만한 증거력을 얻기는 어렵다. 더욱이 도봉구 수유동에서 채록한 음성자료의 경우는 대체로 충실한 전사 실태를 보인다. 예컨대 <표 3>은 채록한 일자가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미전사 부분의 간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들만 뽑아서 그 분량을 세밀히 조사한 것이다.[4] 결과는 미아동에서 채록한 음성자료에 비하여 상

4) 채록 일자: 13_03~10, 수유1동 화계노인정, 1979.5.6; 16_04~05, 수유2동 수유노인정; 20_01, 수유3동 상산노인정, 1979.5.13; 26_05, 수유3동 상산노인정, 1979.5.27; 33_01~05, 수유3동 강성도

당히 적은 분량이 나왔다.

그러나 <표 3>에 나타낸 미전사 분량이 또한 1시간 24분 가량에 이르니, 이것을 <표 2>의 미전사 분량과 더하면 5시간 가량이 나온다. 전체가 40시간 분량인데 대하여 순전히 유효한 성분만 가려서 미전사 음성자료 5시간 분량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든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없겠다. 만약에 이것을 평균치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한국구비문학대계』본편 82권에 대하여 적어도 10권의 보유편을 집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유 검토

본편에 수록된 민요가 지극히 적었던 만큼 반드시 전사해야 했었던 이른바 기능요가 의외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은 의아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기능요를 위주로 하자던 조사 원칙과도 어긋나는 점이다. 예컨대 <01_03> 「모심기노래」, <12_08> 「논매기노래」, <16_05> 「농부가」, <33_01> 「모 짓는 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민요가 전사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비기능요가 무차별로 배제되어 있음도 의아스러운 일이다. 당시의 "조사자용 설문지"는 비기능요의 경우도 그것이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사설과 선율의 양면에서 일정한 중요성을 띠는 부류는 아울러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요컨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여 조사자가 손수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5] <표 2>와 <표 3>의 미전사 민요와 직결되는 항목만 가려서 적는다.

> 58. 모심기 노래는 어떤 것이 전해지고 있는가?
> 59. 논매기 노래는 어떤 것이 전해지고 있는가?
> 85. 장타령이나 각설이타령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 90. 아리랑은 어떤 것이 불려지고 있는가?

노인댁, 1979.6.20; 38_03~04, 수유3동 상산노인정, 1979.7.3.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부록: 3. 설문지」, 『口碑文學調査方法』(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50쪽.

91. 숫자 풀이는 어떤 것이 전해지고 있는가?
93. 창부타령을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94. 노래가락이나 청춘가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96. 육자백이는 어떤 것이 전해지고 있는가?[6]

당시에 조사자는 마땅히 기능요만 아니라 비기능요에 속하는 여러 가지 민요도 함께 조사해야 했음을 이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01_08> 「노랫가락」, <04_07> 「창부가」, <07_05> 「청춘가」, <09_03> 「정선아리랑」, <11_06> 「숫자풀이」, <13_04> 「수심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민요나 다름이 없이 불리는 잡가도 두루 탐문하여 조사해야 했었다. 예컨대 <01_10> 「육자배기」, <08_08> 「초한가」, <10_04> 「시조」, <11_01> 「유람가」, <13_06> 「흥타령」, <33_03> 「죽장망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표 2>와 <표 3>의 미전사 민요 38편은 대개가 다 전사되어 조사보고서에 수록될 만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반면에 배제할 만한 필연성이 있어서 배제했던 민요는 적었다. 예컨대 <04_06> 「춘향가」와 <08_09> 「심청가」는 판소리를 부르다, <09_11> 「청년학도가」는 창가를 부르다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전사하지 않았던 듯하다. 아울러 <04_02> 「부모은공가」와 <05_02> 「사부은공가」도 창가에 속하기 때문에 배제했던 듯하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종류의 가요를 민요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구비문학 조사에서 아예 배제해도 좋을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설화의 경우는 본편에 수록된 작품이 민요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으니, 대체로 양호한 전사 실태를 보이는 셈이다. <표 2>와 <표 3>에 보이는 미전사 설화는 모두 14편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전사하지 않았던 사례를 먼저 예컨대, <04_08> 「태조 후처 강대비 이야기」와 <05_06> 「임경업의 소년 시절」은 사건이 너무 산만하게 매거되어 거의 줄거리를 이루지 못하는 지경의 것이기 때문에 전사하지 않았던 듯하다. <08_05> 「강도 이웃 죽인 정상」과 <38_04> 「조선의 이인 부자」는 또한 사건과 사건의 연결이 해이하고 미진하여 주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배제했을 것이다.

그러나 <11_12> 「연정을 품은 한 중의 일장춘몽」과 <26_05> 「사금갑」을 배제했던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부록: 3. 설문지」, 위의 책(1981), 152~153쪽.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전자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조신」 설화를 각색한 것이고, 후자는 신라 소지왕 때의 일로 전하는 「사금갑」 설화를 고구려 "지초왕" 때의 일로 번안한 것이다. 일찍이 문헌에 갇혔던 설화가 다시 한번 더 구전의 동력을 얻었을 때는 또한 어떻게 변모하여 가는지, 이들은 이것을 여실히 관찰할 만한 자료다.

그런가 하면, 조사자가 이미 전사한 설화와 더불어 밀접한 유사성을 띠고 있어서 반드시 함께 전사해야 했었던 설화를 배제시킨 경우가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예컨대 <02_01> 「장한영을 살린 점괘」는 「장한영을 살린 금낭」과, <10_03> 「늦둥이 아들의 똑똑한 유서 풀이」는 「칠십생남비오자」와, <38_03> 「판관 아들과 군수 딸의 연분」은 「아지로 풀은 원수」와, <33_05> 「기름 강아지로 호랑이 잡은 포수」는 「기름 강아지로 호랑이 잡는 애기」와 더불어 유사한 설화다.[7]

여기서 특히 <33_05> 「기름 강아지로 호랑이 잡은 포수」와 같은 경우는 매우 짧은 시간에 걸쳐서 구연된 것이기는 하지만, 황당한 거짓말을 가지고 이로써 일거에 청중의 폭소를 훔치는 제보자의 탁월한 구연 능력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진위와 시비를 가려야만 하는 사실 관계의 저 너머에서 이야기의 참된 즐거움을 찾아 누리는 여러 청중과 그들의 이야기판이 무시된 것도 아쉽다.

III. 미전사 음성자료의 성격과 가치

1. 설화

앞에서 예거한 몇 가지 설화는 그것이 비록 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을 때라도 그것을 모두 전사해야 옳았다. 동일한 유형의 출현 빈도를 충분히 다 반영하여 각 편을 두루 망라하는 가운데 그러한 각 편의 변이 양상과 그 가치를 다양하게 포착해야 하는 학술적 요구가 따르는 까닭이다. 하물며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겠다. 음질이 나쁘고 사투리가 심해서 전사하기 까다

7) 서안열(남), 「장한영을 살린 금낭」, 『대계』, 1-1, 81~87쪽; 송종헌(남), 「칠십생남비오자」, 『대계』, 1-1, 298~302쪽; 강성도(남), 「아지로 풀은 원수」, 『대계』, 1-1, 342~351쪽; 강성도(남), 「기름 강아지로 호랑이 잡은 포수」, 『대계』, 1-1, 272~273쪽.

로운 대목도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난관을 무릅써도 좋을 만큼 버리기 아까운 설화가 많았다.

예컨대 <표 2>의 <05_04> 「이순신을 사모한 구렁이 처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일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상사뱀·상사구렁이 유형에 속하는 바로서 연원이 매우 깊은 설화다. 강진옥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설화는 성현의 『용재총화』에 이미 보이고, 통틀어 41편에 이르는 각 편이 또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되어 전한다.[8] 분포는 특히 경북과 경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은 <05_04> 「이순신을 사모한 구렁이 처녀」를 요약한 것이다.

㉮-① 주막집 처녀가 총각 이순신을 사랑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다.
㉮-② 주모가 이순신의 부모에게 딸의 소원을 말하고 선처를 바라다.
㉮-③ 이순신의 부모가 분노하여 주모를 기둥에 묶어 두다.
㉯-① 이순신이 주모를 풀어 주고 그의 딸을 보러 가겠다는 약속을 하다.
㉯-② 이순신이 갑자기 내린 비로 냇물에 막혀 약속한 때에 이르지 못하다.
㉯-③ 처녀가 그 동안에 이미 죽어서 몸이 구렁이로 바뀌다.
㉰-① 이순신이 뒤늦게 가서 몸을 구렁이에게 맡기다.
㉰-② 구렁이가 다시 처녀의 시체로 바뀌고 혼령이 파랑새가 되어 나오다.
㉰-③ 파랑새가 언제나 장군 이순신을 따라 다니며 적정을 살펴 주다.

이것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바로서, 경남 거창에서 채록된 「이순신 장군과 상사병 걸린 처녀」는 ㉮-③의 배척과 ㉰-②의 해원이 없이 다만 이순신의 덕성과 관용이 화제의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경북 선산에서 채록된 「이순신 장군과 상사뱀」은 ㉮-③의 배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①의 주막집 처녀가 아예 학자 집안 딸로 나오고, ㉰-②의 파랑새도 용으로 나온다. 반면에 <05_04> 「이순신을 사모한 구렁이 처녀」는 ㉮-①에 나오는 '상사 처녀'의 신분이 화제의 관건을 이루는 점에서 홀로 다르다.[9]

---

8)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古典文學硏究』, 18집(한국고전문학회, 2000), 118~122, 129쪽.

9) 신종출(남), 「이순신 장군과 상사병 걸린 처녀」, 『대계』, 8-5, 316~318쪽; 김호준(남), 「이순신 장군과 상사뱀」, 『대계』, 7-15, 364~368쪽.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설화는 대개가 ㉰-①에 나오는 '인연 총각'의 인격에 따라 각 편의 결말이 큰 폭으로 바뀐다. 예컨대 이순신의 자리에 강감찬이 나오는 경우와 조식이 나오는 경우와 조목이 나오는 경우가 크게 다르니,[10] 여기서 '상사 처녀'에 대한 처우가 관용과 배척의 길로 크게 갈리고, 관용과 배척의 방식도 그 귀결과 더불어 크게 다른 양상으로 나뉜다. 조식은 소심한 관용을 베풀다 마침내 제자의 과격한 배척과 무자비한 파멸을 부른다. 조목은 완고한 배척과 소극적 대응에 치우쳐 마침내 가문의 멸족을 부른다.

그런데 각 편의 형태와 그 주제가 어떻든 간에 공통된 화제는 죽어서 구렁이가 된 '상사 처녀'에 모인다. ㉮는 신분에 어긋난 연정을, ㉯는 원통한 죽음과 이변을, ㉰는 원혼의 해원과 보은을 담았다. 여기서 ㉯-③은 특히 '인연 총각'의 '약속 위반'에 의하여 강화되는 성향을 띠는데, ㉯-②의 뜻밖에 지키지 못한 약속을 버리는 대신에 일부러 지키지 않은 약속을 별도로 세우는 경우의 각 편은 대개가 ㉮를 '통정 남녀'의 일로 미리 바꾸고, ㉰를 '원혼의 복수'나 '원혼의 패퇴'로 고쳐서 그친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 그것은 '죽어서 말하기'이다. 공식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의 방법이 부재하는 현실상황에서, 소외된 인물의 자기주장은 이처럼 육신적 죽음과 온몸을 던진 '몸바꿈'이란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언어로 말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행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이다.[11]

겉으로 보기는 <05_04> 「이순신을 사모한 구렁이 처녀」가 행복한 결말에 이른 듯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살아서 얻고자 했던 행복일 뿐이다. 마침내 구렁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몸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인연 총각'은 개인의 자연한 연애 감정을 짓눌러 뭉개는 사회 현실의 여러 구조물에 의하여 사로잡힌 존재다. 강진옥이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상사뱀·상사구렁이는 그러한 구조물을 향하여 "온몸"을 던지는 이들을 하염없이 기억해 내던 바의 화소다. 은어다.

---

10) 신판휴(남), 「강감찬과 상사뱀」, 『대계』, 6-3, 445~446쪽; 강기중(남), 「남명과 상사구렁이」, 『대계』, 8-3, 684~687쪽; 최유신(남), 「조월천과 상사뱀」, 『대계』, 7-11, 740~749쪽.

11) 강진옥, 앞의 논문(2000), 146쪽.

설화는 무릇 그것을 말하고 듣고 즐기는 공동체의 현실 문제를 깊이 고뇌하는 정성이 거기에 담긴다. 그러나 설화의 설화된 이유가 오로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설화는 순전히 설화 자체를 위하여 비롯된 경우가 더 흔하다. 따라서 사정이 아무리 절박한 때라도 그것의 정곡을 질러서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각박한 현실을 말하는 때라도 그것을 대개는 등한히 다룬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기로 하겠다. 다음은 <02_01> 「장한영을 살린 점괘」를 요약한 것이다.

㉮-① 장한영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한 점쟁이를 만나 운수를 점치다.
㉮-② 점쟁이가 주머니 하나를 주면서 세 번째 죽을 고비에 풀어 보라고 하다.
㉯-① 주막집 주모의 음탕한 유혹을 물리쳐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다.
㉯-② 주막집 주모로 가장한 신녀를 희롱하다 도리어 훈계를 듣다.
㉰-① 서울에 이르러 곧 홍정승 딸의 상부살 액막이 감으로 붙잡혀 갇히다.
㉰-② 홍정승 딸이 은자 석 되를 주면서 달아날 방법을 알려 주다.
㉰-③ 은자 석 되로 청부업자를 따돌려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다.
㉰-④ 과거에 급제하고 홍정승 딸과 혼례를 치르다.
㉱-① 홍정승 딸이 첫날밤 신방에서 괴한에게 죽임을 당하다.
㉱-② 장한영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살인 누명을 쓰고 형틀에 묶이다.
㉱-③ 사형을 당하는 위기에서 점쟁이가 주었던 바의 주머니를 풀어 보다.
㉱-④ 주머니 속에서 나온 난해 문구로 말미암아 사형 집행을 미루다.
㉱-⑤ 김정승 딸이 난해 문구를 해석하여 범인의 이름을 밝히다.
㉲-① 홍정승 딸과 치정 관계에 있었던 한 중이 실제 범인으로 잡히다.
㉲-② 장한영이 새롭게 김정승 딸에게 장가를 들고 홍정승은 우세를 사다.

<02_01> 「장한영을 살린 점괘」는 충남 당진에서 채록된 「황백삼 잡은 얘기」와 더불어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12] 앞에서 지적한 「장한영을 살린 금낭」도 유사한 설화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황백삼 잡은 얘기」는 ㉯-②가 나오지 않으며, ㉱-⑤의 해석 대상과 그 결과가 또한 다르다. 범인을 붙잡는 일까지 ㉱-⑤

12) 김성룡(남), 「황백삼 잡은 얘기」, 『대계』, 4-1, 522~531쪽. 이것은 <02_01> 「장한영을 살린 점괘」 ㉱-⑤에 나오는 해석 대상과 그 결과가 '粗斗米三升'에 따른 '糠七升'(康七昇)이 아니라 '黃紙三白字'에 따른 '黃白三'으로 나온다.

의 해석 주체가 해 내는 것으로 엮어서 주인공 여자의 역할을 강조한 점도 다르다. 「장한영을 살린 금낭」은 ㉲-⑤의 해석 대상과 그 결과가 「황백삼 잡은 애기」와 같지만, ㉮와 ㉯가 없이 곧장 ㉰로 시작하는 점이 홀로 다르다.

각 편은 모두 ㉲-①의 살인 사건을 굴대로 삼는다. ㉰-①의 액막이 행태와 ㉳-①의 치정 관계가 다시 두 개의 바퀴를 이룬다. 평범한 과객 장한영은 ㉰-①에 치이고 ㉳-①에 얽혀서 문득 ㉲-①의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감겨 버렸다. 사건의 골격과 맥락이 안으로 치밀하게 짜였다. 미신에 이끌려 청부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던 권문의 극악한 횡포와 양가 규수의 은밀한 탈선을 배경으로 가져온 것도 주목할 점이다.

그런데 전체로 보자면, 현실에 속하는 어떠한 문제도 정작은 이 설화의 표적이 아니다. 유혹에 정직을, 폭력에 재물을, 사기에 지혜를 써 보이는 교훈도 궁극의 표적이 아니다. 예언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면서 점차로 심도를 더해 가는 사건의 궤도와 그에 따른 주인공 남자의 거듭된 성패와 그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는 주인공 여자의 출현을 거쳐서 마침내 도달한 주인공 남녀의 '성공 일화'가 오히려 표적에 가깝다. 궁극의 표적은 이것을 통틀어 한 덩어리로 느껴서 저마다 심중에 가지는 재미다.

권문의 극악한 횡포에 대한 경악과 분노는 이전에 이미 함께 가졌던 것일지 모른다. 양가 규수의 은밀한 탈선에 대한 개탄은 이제야 비로소 함께 가지는 것일지 모른다. 아무튼 이러한 사정을 폭로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등한히 변죽을 쳐서 은근히 한복판을 울리는 울림을 지닌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설화의 표적이 실제로 각박한 현실에 있는 경우를 예거해 보기로 하겠다. 다음은 <12_09>와 <13_01>에 전후로 나뉘어 채록된 「고아 장개필의 귀향」을 요약한 것이다.

㉮-① 안동에 살던 장개필이 겨우 일곱 살 나이로 부모를 모두 여의다.
㉮-② 개똥을 주워 남의 전답에 거름을 보태는 일로 밥을 얻어먹고 자라다.
㉮-③ 서울에 가면 잘 된다는 말에 솔깃하여 안동을 떠나 서울로 가다.
㉯-① 거지로 떠돌다 우연히 김정승댁 대문간 부엌에서 잠을 자다.
㉯-② 김정승 맏딸이 한밤에 벌이는 청상과부 신랑놀이를 오라비가 엿보다.
㉯-③ 김정승이 대문간에 나타난 청룡을 꿈꾸고 장개필을 찾아 들이다.
㉯-④ 김정승이 장개필을 맏딸 사위로 삼고자 하여 오라비의 뜻을 묻다.

㉮-⑤ 장개필로 말고삐를 잡혀서 막대한 유산과 함께 맏딸을 내보내다.
㉯-① 김정승 맏딸이 장개필의 용모에 반하여 한번 시험해 볼 생각을 품다.
㉯-② 여관에 머물며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인근의 일감을 잔뜩 모으다.
㉯-③ 김정승 맏딸이 유산과 함께 일감을 모두 훔쳐 가지고 자취를 감추다.
㉯-④ 여관 주인이 장개필을 도둑의 한패로 몰아 배상의 책임을 묻다.
㉯-⑤ 장개필이 여관 주인의 협박에 맞서 감금과 매춘의 혐의를 묻다.
㉯-⑥ 장개필의 기세에 눌린 여관 주인이 막대한 금전을 주어 내보내다.
㉯-⑦ 김정승 맏딸이 장개필의 기지와 배짱을 엿보고 혼인할 생각을 품다.
㉰-① 혼례를 치르고 안동에 돌아가 가옥과 전답을 대단하게 마련하다.
㉰-② 괄시와 폭행을 예상한 김정승 맏딸이 수백 벌의 의복을 사 들이다.
㉰-③ 수백 벌의 의복이 다 찢기도록 뭇 사람들이 괄시와 폭행을 일삼다.
㉱-① 오라비가 어사로 출두하여 폭행한 이들을 모두 옥에 가두다.
㉱-② 오라비가 옥에 갇힌 이들의 처분을 장개필에게 맡기고 돌아가다.
㉲-① 장개필이 막대한 몸값을 받고 옥에 갇힌 이들을 모두 풀어 주다.
㉲-② 괄시를 면하게 되자 서울로 친영을 다녀오고 아무 탈 없이 잘 살다.

하찮은 처지에 있던 총각이나 머슴이 부유한 이웃집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행운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컨대 전남 장성에서 채록된 「배짱으로 돈 많은 과부 얻은 총각」은 ㉯의 '배필 시험'과 거의 동일한 사건을 전반에 서술한 설화다. 과부를 개가시키는 온정과 의리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컨대 충북 영동에서 채록된 「남몰래 개가시킨 양반집 과부」는 ㉮의 '과부 재가'를 특히 오라비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서술한 설화다.[13]

그러나 그러한 과부를 외롭고 서러운 고아의 짝으로 맺어 주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대개는 부유한 과부를 한번 건드려 보자는 수작에서 비롯된 설화가 많으니, 관계가 조금은 어쭙잖아도 상대가 돈이 많아서 큰 다행이라는 방식의 혼사를 우스꽝스럽게 엮어낸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14] 반면에 「고아 장개필의 귀향」은 보호를

13) 김원중(남), 「배짱으로 돈 많은 과부 얻은 총각」, 『대계』, 6-8, 438~443쪽; 윤득이(남), 「남몰래 개가시킨 양반집 과부」, 『대계』, 3-4, 817~828쪽.

14) 한부길(남), 「돈 많은 과부에게 장가든 노총각」, 『대계』, 2-8, 593쪽; 윤자삼(남), 「돈 많은 과부를 얻어 팔자 고친 머슴」, 『대계』, 3-4, 446쪽; 홍재수(남), 「꾀로 부자 과부에게 장가든 머슴」, 『대계』, 5-7, 749~750쪽; 안상구(남), 「부자 과부에게 장가간 꾀보 총각」, 『대계』, 8-10, 341쪽.

받을 만한 사회적 배경이 전혀 없이 자라난 약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괄시와 천대를 정면에서 문제로 삼았다.

주인공 남자가 처음에 개똥망태를 버리고 서울로 간 것은 괄시와 천대를 피해서 간 것이다. 다행히 재력을 얻어서 괄시와 천대를 면하게 될 만도 했는데, 비천한 과거를 '근본 인격'으로 치는 세태는 고향에서 더욱 고약한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재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바였다. 주인공 여자가 수백 벌의 의복을 장만한 것은 그러한 물정을 미리 알고서 한 조치다.

그러니 이 작품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된다'를 넘어서 '돈만 가지고는 안 된다'에 이르는 깨우침을 설파하고 있는 셈이다. 표적은 재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분별과 이해다. 그러나 궁극은 이것이 아니다. 궁극의 표적은 현실성 없는 용꿈과 어사 출두로 그것을 상징할 만하다. 그것은 이해와 온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어둠에 남기지 않는 발견과 보호다.

사람은 본디 말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본성을 지닌다. 오죽하면 혼자 대밭에 가서라도 임금의 당나귀 귀를 외쳐야 했을까? 이른바 '말하다'는 '무엇을'의 타자 인식과 '누구에게'의 사회관계를 저절로 그 안에 아울러 가진다. 설화가 모종의 사회 문제와 더불어 영향을 주고받는 까닭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을 받아들이는 설화의 이면은 심연과 같아서 그 양상을 이루 다 헤아려 알기 어렵다. 설화는 결코 함부로 버려질 만한 사물이 아니다.

2. 민요

민요는 사설과 선율 및 기능을 통틀어 고려해야 그 본질과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음악적 소양과 가창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그러나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은 서적이라는 매체의 제약에 의하여 개별 작품의 사설과 그 구연 상황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음악을 연구하는 데 유익한 자료가 되지는 못했다. 별도로 음반을 제작해서 덧붙여 두어도 좋았을 테지만, 이러한 작업까지 사업 계획에 넣기는 아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도봉구 미아동과 수유동 일대에서 채록한 민요에 있어서, <표 3>의 <33_01> 「모 짓는 소리」는 특히 선율과 기능을, <33_03> 「죽장망혜」는 특히 사설과 제보

자의 음악적 소양과 가창력을 중시할 만한 자료다. 제보자 오판삼(남)은 전문 가객에 가깝다고 할 만큼 뛰어난 목청과 정확한 사설로 판소리 단가 「죽장망혜」를 불러서 좌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반면에 「모 짓는 소리」는 스스로 기꺼워하는 기색이 적었다. 다음은 그가 불렀던 <33_01> 「모 짓는 소리」와 그 구연 상황을 가져온 것이다.

조사자: 테잎 넘버 33번, 1979년 6월 20일, 강성도 할아버님 댁에서.
제보자: 모 짓는 소리부터 해 보지?
조사자: 네.
제보자: 이것이, 모 짓는 소리여.
조사자: 네.
제보자: [가창-①] '여보소, 농부(農夫), 말 들오. 일농작(一農作)을 지여내서, 우리 선근(善根) 곱소. (청중_1: 허으!) 백발부모(白髮父母) 봉양(奉養)허고 활혈(活血) 천양(天養)허는 것도 장부(丈夫) 헐 일이라. 어허야, 어허야루, 상사뒤여.' [설명-①] 매기는 소리는 인자, 그 인자, '백발부모 봉양헌다' 소리는 메기는 소리고, (조사자: 네에.) '어야, 어야, 상사뒤여' 허는 놈은, 여럿이서 그 말끝에 인자 따라서, 따라 오면서 이냥, 막 일치해서 헌다고 치면은, 아으, 들을 만해요.
조사자: 네에. 다른 곡조, 또 메기시죠?
제보자: 긍게 그것도 여러 가진디.
청중_1: 그냥 해 봐.
청중_2: 아이, 멫 자리 해야 여.
제보자: [가창-②] '일락(日落) 서산(西山)의 해 떨어지고', [설명-②] 이건 '잦은 잦은소리'로 인자 허는 거여. [가창-③] '에헤루, 상사뒤여. 간다, 간다, 모나무가 간다. 에, 에헤루, 상사뒤여.' [설명-③] 이건 '잦은소리'여.
조사자: 네.

당시에 이것을 전사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에 수록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편장을 이룰 만한 분량의 사설을 끊어 내어야 했을 것이니, 대개는 [가창-①]을 전사하는 데 그치고, [가창-②]나 [가창-③]과 같은 부분은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구연 상황과 그 선율 및 사설을 모두 중시하는 입장에서 음성자료 자체를 확보하기로 한다면, 반드시 [설명-③]에 이르는 그 전체를 하나의 개별 단

위로 처리할 것이니, [가창-②]나 [가창-③]과 같은 부분을 잃지 않을 것이다.

중간에 설명이 들어간 것만 보자면 자투리에 지나지 않는 듯하나, [가창-②]와 [가창-③]을 한데 더하면 실상은 온전한 1개 장구가 더 나온다. 오판삼의 설명에 따르면, '일락(日落) 서산(西山)의 해 떨어지고'와 '간다, 간다, 모나무가 간다'를 "잦은잦은소리"로 앞에서 메기면, 사이에 여럿이 잇달아 '에헤루, 상사뒤여'를 "잦은소리"로 넣어 부른다. 선율에 사설을 붙이는 방식을 기준으로 박자의 속성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 견해도 소중한 자료다.

>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강산(千里江山)을 들어가니, 폭포(瀑布)도 장(壯)히 좋다마는 여산(廬山) 경치(景致)가 여기로구나. 비류직하(飛流直下) 삼천척(三千尺)은 옛말로만 들었더니, 의시은하(疑是銀河) 낙구천(落九天)은 과연(果然) 허언(虛言)이 아니로구나. 그 물 유두(流頭)허여 진금(塵襟) 씻친 후(後)의 석경(石逕)의 좁은 길로 인도(引導)한 곳을 나려가니, 저익(沮溺)은 이랴 밭을 갈고, 사호선청(四皓先淸)은 바둑을 둔다. 기산(箕山)을 넘고 넘어 영수(潁水)로 돌아드니, 허유(許由)는 무삼 일로 팔 걷고 귀를 씻고, 소부(巢父)는 어이 하야 솟고삐를 거사리나. 창랑가(滄浪歌) 반기 듣고 소리 쫓아 나려가니, 엄릉탄(嚴陵灘) 여울물에 고기를 낚는 어옹(漁翁) 하나 양(羊)의 갖옷을 떨쳐입고 벗을 줄을 모르는구나. 오호(嗚呼)라, 성현(聖賢)이여. 기군평(棄君平)은 미제군평역기세(未齊君平亦棄世)라. 황산곡(黃山谷) 돌아드니, 죽림칠현(竹林七賢)이 다 모였네. 영척(甯戚)은 소를 타고, 맹호연(孟浩然)은 나귀 타고, 두목지(杜牧之)를 보랴 허고 백낙천변(白樂天邊)을 나려가니, 장건(張騫)의 승사(乘槎)로구나. 맹동야(孟東野) 너른 들판의 와룡강변(臥龍江邊)을 당도(當到)허였으니, 아니 놀고 무엇을 헐 거나. 거드렁거리고 놀아봅시다.
>
> — 오판삼(남), 「죽장망혜」, 1979.6.20.

이것은 오판삼이 불렀던 「죽장망혜」의 전편을 가져온 것이다. 판소리 단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사하지 않았던 듯한데, 이것을 오로지 전문 가객의 소유로 보고 민요의 범위에 넣지 않은 것은 문제가 따른다. 민요를 찾는다고 하면서 오로지 노동요만 고르는 사고의 경색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비하면 차라리 모든 잡가를 민요로 보는 천착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면 전문 가객의 소유가 실상은 소박한 민요나 무가를 그 바탕으로 가짐을, 민요는 다시 전문 가객의 소유를

나누어 가짐을 잡가로 말미암아 수월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잡가를 불러 뛰어난 가창력을 드러낸 사례를 들자면, <표 2>의 <01_11> 「육자배기(1)」을 부른 김동헌(남)을 첫째로 꼽을 만하다. <표 3>의 <16_04> 「육자배기(2)」를 부른 이창순(남)의 가창력도 보통이 아니다. 김동헌은 '노잘거나'로 맺는 사설을 우조로 불렀다. 사설의 모든 음절을 또박또박 목으로 짚어서 부르는 창법과 날아오르듯 시원하게 내뻗는 발성을 특히 주목할 만했다. 이창순은 '따를거나'로 맺는 사설을 평조로 부르되, 여기에 2개 장구를 더 잇대어 1편을 삼았다. 다음은 이창순의 사설을 가져온 것이다.

> [제1장] 거나, 허이. 님도 나를 생각을 허는가. 나만 홀로 그리드냐. 님이 날과 같이 생각을 헌다며는, 천리만리(千里萬里)라도 따를거나, 헤이. [제2장] 꿈아, 꿈아, 무정(無情)헌 꿈아. 꿈속에 오신 님을 붙잡어 놓구, 상전(桑田) 아래 깨어나렬거나, 헤이. [제3장] 공산양(空山陽)을 두견새(杜鵑-)언가, 동방춘풍(東方春風) 고적지동(孤寂之洞)은. 다만 생각이 나는 걷은 우리 님 뿐이로랄거나.
>
> — 이창순(남), 「육자배기」, 1979.5.13.

그리고 노동요나 잡가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 민요가 많은 수량에 걸쳐서 미전사 상태로 남아 있음을 또한 지적해 두어야 하겠다. 우선은 「노랫가락」을 들 수 있으니, 대개가 대엽조 단가의 사설을 가져다 조금씩 고쳐 부르는 이것은 특히 경기민요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점에서 그 양상을 두루 주목할 만했다. 예컨대 <03_06> 「노랫가락 - 천지로 장막을 삼고」와 같은 것은 17세기 초반에 비롯된 대엽조 단가를 차용하였다.[15] <03_04> 「노랫가락 - 득주하면 난득우요」의 사설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 대엽조 단가의 하나로 전한다. 이밖에, 서도민요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바로서 「노랫가락」과 비슷한 지위에 있었던 「수심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은 <13_05> 「수심가 (단가)」를 가져온 것이다.

> [제1장] 약사(若使) 몽혼(夢魂)으로 행유적(行有迹)이면, 문전석노(門前石路)

15) 다음과 같은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단가가 전한다. "天地로 將幕 삼고 日月노 燈燭 삼아 北海를 휘여다가 酒罇에 다혀 두고 南極에 老人星 對ᄒᆞ여 늙글 뉘를 모로리라" 李衡祥, 『樂學拾零』 통번201호: 『甁窩全書』, 9권(韓國精神文化硏究院 影印, 1980), 803쪽.

> 가 반성사(半成砂)로구나. 은지나든지 그대 화용(花容)을 못 잊어, 어이 백년(百年)을 살까. [제2장] 아, 강상(江上)에 둥둥 떠가는 내 행(幸)여 회잠깐(回暫間) 하추월(何秋月)에 말 물어나 보자. 만나기 어렵고 이별(離別) 맞어서 성화(成火)라. 어이 백년(百年)을 살까.
>
> — 유응환(남), 「수심가 (단가)」, 1979.5.6.

이것은 제2장의 첫머리에 환두를 넣어서 "아, 강상(江上)에 둥둥 떠가는 내 행(幸)여"를 새로운 선율로 부르는 쌍첩 형식의 단가다. 제보자 유응환(남)은 이것을 또한 "공돌(空-)하니 백발(白髮)이 오고, 떠날 손도 죽음이로다"로 시작하는 <13_04> 「수심가 (장가)」에 곧 이어서 불렀다. 따라서 장가와 단가를 한데 엮어서 부르는 대편 악곡의 일부인 셈이다. 이러한 편성은 장가 형태와 단가 형태를 모두 가지는 고려시대의 속악가사 「북전」과 더불어 일맥을 이루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사설도 명구가 쓰였다. 여기에 나오는 '약사(若使) 몽혼(夢魂)으로 행유적(行有迹)이면'의 사설은 16세기 중반에 비롯된 한시 작품의 한 구절을 차용하였다.[16] 원작은 '꿈결에 다닌 넋이 자취를 가질 양이면, 서원성(西原城) 북녘이 모두 길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감을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로 바꾸어 놓았다. 생소한 배경을 친근한 장소로 바꾸어 점정의 효과를 거뒀다.

원작의 특수한 발화를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능할 만큼 개연성이 큰 발화로 고쳐서 그 미적 차원을 공중과 더불어 두루 나누어 가졌던, 이러한 능력과 그 욕구는 민요의 가장 중요한 미적 본질을 이루는 요소다. 무가로 출발한 「성주풀이」나 주령으로 출발한 「육자배기」가 일찍이 그것을 창조한 계급의 소유를 벗어나 본래의 특수한 기능을 버리면서 민요의 본령에 진입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창조한 주체만 아니라 향유할 줄 아는 주체를 함께 고려해야 민요의 범위를 타당하게 설정할 수 있으니, 이것은 모내기나 길쌈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에 하고 많은 경전 문자가 넘쳐나는 현상을 이치에 맞도록 설명할 만한 논리적 기초이기도

---

16) 다음과 같은 윤현(尹鉉, 1514-1578)의 고사가 전한다. "尹判書鉉爲忠淸方伯時, 淸州有所眄. 後有詩曰, '人生離合苦無齊, 忍淚當時愴解携. 若使夢魂行有跡, 西原城北摠成蹊.', 唯結句似好." 李睟光, 「麗情」, 『芝峰類說』, 14권(景仁文化社 影印, 1970), 16쪽.

하다. 민중이 모두 우민은 아니다. 그들은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유희도 하고 유람도 하고 연애도 한다. 여기에 따른 생활 감정은 태반이 저 무수한 잡가에 담겼다. 이것을 수습하는 데 적잖이 인색했던 바가 있음을 아쉽게 여길 만하다.

IV. 결론: 보유편 집성의 필요

우리의 구비문학 조사 사업은 모두 15년의 기간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군을 조사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1979년부터 제1차 5개년 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최종 목표의 4할 가량에 이르는 64개 단위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1988년에는 드디어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 82권의 완간을 보았다. 1989년에는 설화 자료에 따른 부록 2권이, 1992년에는 민요·무가 자료에 따른 부록 1권이 나왔다.

이러한 제1차 5개년 조사 사업이 완수된 이래로 차후의 조사를 위한 어떠한 기약도 없이 그치기는 했지만, 1978년 5월에 착수하고 그 해 12월에 수립했던 바의 조사 계획과 그 지침이 매우 치밀했을 뿐만 아니라 추진 성과가 또한 매우 대단했던 까닭에 그것이 미완에 그친 일을 돌이켜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주 드문 듯싶다.

여기서 조사 계획과 그 지침이 매우 치밀했다는 것은 조사위원회를 사전에 가동하여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예비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모두 거쳤다는 사실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조사 방법과 보고 양식의 통일안을 미리 정비하여 전국에 걸친 현장 조사를 일관되게 장악했고, 조사 결과는 학술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모두 기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체제에 따라 동일하게 편집하여 서적으로 간행했다. 차후의 조사 계획에 따른 성과를 여기에 누적시킬 때도 기존의 구성 체계에 거의 변동이 없도록 서적 전체를 조직했다.

그리고 추진 성과가 또한 매우 대단했다는 것은 조사 결과의 전체 분량과 각각의 조사 대상에 따른 분량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78년 이전의 조사 분량 전체가 설화 2,895편, 민요 6,003편, 무가 627편에 그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17] 1979년

17) 曹喜雄, 「2. 설화: 2.2. 설화 자료 수집 상황」, 『口碑文學調査方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1), 52~65쪽; 印權煥, 「3. 민요: 3.2. 민요 자료 수집 상황」, 『口碑文學調査方法』(한국정

이후로 전개된 5개년 조사를 통하여 설화 15,109편, 민요 6,185편, 무가 376편을 한꺼번에 집성했다.[18]

이처럼 방대한 조사 결과를 지극히 적은 조사비를 들여서 산출할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다. 당시에 지원된 조사비는 현지 조사를 위한 실비를 거의 넘지 않았다. 이것은 곧 현장에서 채록한 음성자료를 문자로 전사하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녹음된 음성을 문자로 전사하는 작업은 자료를 찾아 현장을 누비는 수고에 비길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롭다. 이러한 작업을 아무 불평도 없이 몸소 해 냈던 당시의 조사자 제위를 우리는 마땅히 경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적 노력이 미처 다 이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세월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해 가는 바로서, 당시에 현장에서 채록한 음성자료 자체를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과 구별되는 독립적 기록물로 재편하여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이 남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토대를 이루게 될 바로서, 우선은 그 음성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유효한 성분에 속하는 미전사 음성자료를 새롭게 조사하고 전사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 보유편을 집성하는 작업이 남았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지만, 이상과 같은 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녹음테이프에 기록된 음성자료 전체를 개별 단위에 따라 모두 분절시켜 각각의 개체로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게 분리하여 얻은 각각의 개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히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여기서 가장 우선시할 기준은 당연히 음성자료 자체의 가치다. 음성에 의한 작품의 구현과 그 완성도에 중점을 두고 설화와 민요·무가의 명편을 선별하는 작업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구비문학대계』 1-1을 집성하는 데 활용된 녹음테이프 40개 가운데 미전사 부분으로 남겨진 음성자료는 모두 11시간 30분 가량에 이

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1), 82~92쪽; 金泰坤, 「巫歌 資料 蒐集의 現況 檢討」, 『口碑文學』, 1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79), 50~64쪽.

18) 趙東一, 「'전국 구비문학 조사연구'의 경위와 성과」, 『口碑文學』, 9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90), 7쪽. 조동일의 통계는 "설화 14,911편, 민요 6,117편, 무가 376편, 기타 21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당시에 간행이 지연되고 있었던 『한국구비문학대계』 5-7의 '설화 198편'과 '민요 68편'이 제외된 수치다.

르되, 여기서 다시 잡음과 공백을 모두 제외하고 순전히 유효한 성분만 가려서 얻을 수 있는 미전사 부분은 또한 제한된 범위에서 확인된 결과가 이미 5시간 분량에 이른다. 전체의 8분의 1이다. 이것을 평균치로 잡아 추산해 보건대, 82권의 본편에 대하여 적어도 10권의 보유편을 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별표 1> 도봉구 미아동 채록 음성자료 종합 목록

번 호	현 황	구 분	기 점	종 점	지 속	제 목
01_01	기전사	설화	0:00:25	0:08:33	0:08:08	오성과 한음 (1)
01_02	기전사	설화	0:08:33	0:18:52	0:10:19	과거 보러 간 선비
01_03	미전사	민요	0:18:52	0:20:02	0:01:10	모심기노래 (1)
01_04	공백	공백	0:20:02	0:21:32	0:01:30	(공백)
01_05	기전사	설화	0:21:32	0:23:08	0:01:36	오성과 한음 (2)
01_06	기전사	설화	0:23:08	0:28:58	0:05:50	천자 화상과 천재 소년
01_07	기전사	설화	0:28:58	0:31:54	0:02:56	곽씨의 유래
01_08	기전사	설화	0:31:54	0:46:50	0:14:56	박문수를 가르쳐준 신동들
01_09	미전사	민요	0:46:50	0:47:38	0:00:48	노랫가락 - 충신은 만조정하고
01_10	미전사	민요	0:47:38	0:48:28	0:00:50	한강수타령
01_11	미전사	민요	0:48:28	0:49:53	0:01:25	육자배기 (1)
01_12	공백	공백	0:49:53	1:02:51	0:12:58	(공백)
02_01	미전사	설화	0:00:30	0:22:39	0:22:09	장한영을 살린 점괘
02_02	기전사	설화	0:22:39	0:43:20	0:20:41	세 대통의 예언
02_03	기전사	설화	0:43:20	0:47:21	0:04:01	쟁기·가래·소시랑
02_04	기전사	설화	0:47:21	1:00:03	0:12:42	산삼과 대망
02_05	공백	공백	1:00:03	1:02:14	0:02:11	(공백)
03_01	기전사	설화	0:00:25	0:04:08	0:03:43	회덕 송씨네 망두석
03_02	실패	설화	0:04:08	0:05:06	0:00:58	(실패)
03_03	실패	민요	0:05:06	0:05:34	0:00:28	(실패)
03_04	미전사	민요	0:05:34	0:06:16	0:00:42	노랫가락 - 득주하면 난득우요
03_05	기전사	설화	0:06:16	0:12:29	0:06:13	명씨의 유래
03_06	미전사	민요	0:12:29	0:13:47	0:01:18	노랫가락 - 천지로 장막을 삼고
03_07	중복	설화	0:13:47	0:20:34	0:06:47	*과거 보러 간 선비 (후반)
03_08	중복	민요	0:20:34	0:22:41	0:02:07	*모심기노래 (1)
03_09	중복	설화	0:22:41	0:28:25	0:05:44	*천자 화상과 천재 소년
03_10	중복	설화	0:28:25	0:43:36	0:15:11	*박문수를 가르쳐준 신동들
03_11	중복	설화	0:43:36	0:46:07	0:02:31	*곽씨의 유래
03_12	중복	설화	0:46:07	1:02:26	0:16:19	*장한영을 살린 점괘 (전반)
04_01	기전사	설화	0:00:35	0:08:18	0:07:43	송우암과 허미수
04_02	미전사	민요	0:08:18	0:10:42	0:02:24	부모은공가
04_03	기전사	민요	0:10:42	0:13:32	0:02:50	논매기노래 (1)
04_04	기전사	민요	0:13:32	0:15:50	0:02:18	밭매기노래
04_05	기전사	민요	0:15:50	0:19:10	0:03:20	논매기노래 (2)

04_06	미전사	민요	0:19:10	0:32:31	0:13:21	춘향노래 (중단)
04_07	미전사	민요	0:32:31	0:35:57	0:03:26	창부가
04_08	미전사	설화	0:35:57	0:50:24	0:14:27	태조 후처 강대비 이야기
04_09	기전사	설화	0:50:24	0:56:20	0:05:56	산송판결
04_10	기전사	설화	0:56:20	1:00:17	0:03:57	상가승무노인탄
04_11	중복	민요	1:00:17	1:02:01	0:01:44	*댕기타령 (전반)
05_01	기전사	민요	0:00:22	0:03:20	0:02:58	댕기타령
05_02	미전사	민요	0:03:20	0:06:09	0:02:49	사부은공가
05_03	기전사	설화	0:06:09	0:27:57	0:21:48	정승딸 얻은 노총각
05_04	미전사	설화	0:27:57	0:37:21	0:09:24	이순신을 사모한 구렁이 처녀
05_05	기전사	설화	0:37:21	0:50:38	0:13:17	장한영을 살린 금낭
05_06	미전사	설화	0:50:38	1:00:52	0:10:14	임경업의 소년 시절
06_01	기전사	설화	0:00:07	0:06:13	0:06:06	박문수의 효부표창
06_02	기전사	설화	0:06:13	0:10:09	0:03:56	사신을 물리친 소년 김시습
06_03	기전사	설화	0:10:09	0:13:41	0:03:32	정승 날 자리 왕이 날 자리
06_04	기전사	설화	0:13:41	0:31:27	0:17:46	금시발복
06_05	기전사	설화	0:31:27	0:39:01	0:07:34	개가 둔갑하여 며느리를 죽이다
06_06	기전사	설화	0:39:01	0:58:40	0:19:39	며느리의 시어머니 교육
06_07	공백	공백	0:58:40	0:59:47	0:01:07	(공백)
06_08	삭제	삭제	0:59:47	1:02:19	0:02:32	(삭제)
07_01	기전사	설화	0:00:39	0:11:57	0:11:18	오한영 부부의 장난
07_02	기전사	설화	0:11:57	0:40:15	0:28:18	최치원담
07_03	기전사	설화	0:40:15	0:47:07	0:06:52	저절로 벌어지는 밤송이
07_04	미전사	설화	0:47:07	0:57:45	0:10:38	노름꾼 아들이 노름 끊은 사연
07_05	미전사	민요	0:57:45	0:59:32	0:01:47	청춘가
07_06	중복	설화	0:59:32	1:02:06	0:02:34	*개가 둔갑하여 … (전반)
08_01	기전사	설화	0:00:16	0:09:47	0:09:31	억센 신부 길들이기
08_02	기전사	설화	0:09:47	0:20:01	0:10:14	무식한 아들의 수업
08_03	기전사	민요	0:20:01	0:23:44	0:03:43	성주풀이 (1)
08_04	기전사	민요	0:23:44	0:25:47	0:02:03	길군악
08_05	미전사	설화	0:25:47	0:39:50	0:14:03	강도 이웃 죽인 정상
08_06	기전사	민요	0:39:50	0:41:40	0:01:50	논매기노래 (3)
08_07	기전사	민요	0:41:40	0:42:53	0:01:13	모심기노래 (2)
08_08	미전사	민요	0:42:53	0:46:17	0:03:24	초한가
08_09	미전사	민요	0:46:17	0:50:43	0:04:26	심청가 (중단)
08_10	공백	공백	0:50:43	1:02:05	0:11:22	(공백)
09_01	기전사	설화	0:00:19	0:08:35	0:08:16	선생님 장가들이기
09_02	미전사	민요	0:08:35	0:09:49	0:01:14	성주풀이 (2)
09_03	미전사	민요	0:09:49	0:13:02	0:03:13	정선아리랑
09_04	기전사	민요	0:13:02	0:15:13	0:02:11	모심기노래 (3)
09_05	미전사	민요	0:15:13	0:18:09	0:02:56	동네 울산 큰애기
09_06	미전사	민요	0:18:09	0:18:59	0:00:50	밀양아리랑
09_07	기전사	설화	0:18:59	0:20:55	0:01:56	먹보와 장사와 건망이
09_08	기전사	민요	0:20:55	0:24:53	0:03:58	어사용
09_09	미전사	민요	0:24:53	0:26:19	0:01:26	노랫가락 - 앞 강에 뜬 배는

09_10	기전사	민요	0:26:19	0:30:28	0:04:09	망개노래
09_11	미전사	민요	0:30:28	0:31:29	0:01:01	청년학도가 (중단)
09_12	기전사	민요	0:31:29	0:33:46	0:02:17	담넘세
09_13	기전사	민요	0:33:46	0:36:49	0:03:03	염불타령 (1)
09_14	미전사	담화	0:36:49	0:37:43	0:00:54	설명 - 옛날 닐니리의 칫머리
09_15	미전사	담화	0:37:43	0:44:48	0:07:05	설명 - 삼베 만드는 공정
09_16	기전사	민요	0:44:48	0:59:50	0:15:02	강남땅 강소제
09_17	공백	공백	0:59:50	1:02:28	0:02:38	(공백)
10_01	기전사	설화	0:00:22	0:04:38	0:04:16	언문문장
10_02	기전사	설화	0:04:38	0:09:16	0:04:38	효자효부
10_03	미전사	설화	0:09:16	0:14:09	0:04:53	늦동이 아들의 똑똑한 유서 풀이
10_04	미전사	민요	0:14:09	0:17:04	0:02:55	시조 - 월정명 월정명커늘
10_05	기전사	설화	0:17:04	0:18:39	0:01:35	양반은 사람이 아냐
10_06	기전사	설화	0:18:39	0:27:31	0:08:52	우연으로 명의가 된 선비
10_07	공백	공백	0:27:31	0:31:20	0:03:49	(공백)
10_08	기전사	설화	0:31:20	0:36:14	0:04:54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10_09	기전사	설화	0:36:14	0:44:43	0:08:29	박문수담
10_10	기전사	설화	0:44:43	0:50:33	0:05:50	원수 갚은 명소지
10_11	공백	공백	0:50:33	1:02:31	0:11:58	(공백)
11_01	미전사	민요	0:00:29	0:05:47	0:05:18	유람가
11_02	미전사	민요	0:05:47	0:11:43	0:05:56	유산가
11_03	기전사	설화	0:11:43	0:18:03	0:06:20	효부로 된 불효부
11_04	미전사	실화	0:18:03	0:22:29	0:04:26	아들 버릇 고친 며느리
11_05	기전사	설화	0:22:29	0:28:30	0:06:01	학이 종을 쳐서
11_06	미전사	민요	0:28:30	0:30:37	0:02:07	숫자풀이 (전반)
11_07	공백	공백	0:30:37	0:31:26	0:00:49	(공백)
11_08	미전사	민요	0:31:26	0:36:26	0:05:00	숫자풀이 (후반)
11_09	기전사	설화	0:36:26	0:44:35	0:08:09	용단호장
11_10	기전사	설화	0:44:35	0:48:38	0:04:03	바보 원님을 속인 이방
11_11	기전사	설화	0:48:38	0:50:52	0:02:14	대신 잡은 호랑이 꼬리
11_12	미전사	설화	0:50:52	0:58:59	0:08:07	연정을 품은 한 중의 일장춘몽
11_13	공백	공백	0:58:59	1:00:08	0:01:09	(공백)
12_01	미전사	민요	0:00:43	0:02:16	0:01:33	옛날 곡조 아리랑
12_02	기전사	민요	0:02:16	0:03:40	0:01:24	염불타령 (2)
12_03	기전사	민요	0:03:40	0:22:37	0:18:57	닐리리타령
12_04	기전사	민요	0:22:37	0:25:45	0:03:08	각서리타령
12_05	기전사	민요	0:25:45	0:27:00	0:01:15	간다간다 내가 돌아간다
12_06	미전사	민요	0:27:00	0:28:20	0:01:20	양산도
12_07	기전사	민요	0:28:20	0:31:43	0:03:23	모심기노래 (3)
12_08	미전사	민요	0:31:43	0:33:23	0:01:40	논매기노래 (4)
12_09	미전사	설화	0:33:23	1:02:24	0:29:01	고아 장개필의 귀향 (전반)
13_01	미전사	설화	0:00:08	0:21:07	0:20:59	고아 장개필의 귀향 (후반)
13_02	공백	공백	0:21:07	0:31:29	0:10:22	(공백)

※ 작성자 : 김태환(2008)

<별표 2> 도봉구 미아동 채록 음성자료 기전사 목록

번호	기점	종점	지속	제목
01A_F001	0:00:21	0:05:46	0:05:25	오성과 한음 (1)
01A_F002	0:08:30	0:17:42	0:09:12	과거 보러 간 선비
01A_F003	0:21:24	0:22:30	0:01:06	오성과 한음 (2)
01A_F004	0:23:08	0:27:37	0:04:29	천자 화상과 천재 소년
01B_F005	0:28:58	0:31:21	0:02:23	곽씨의 유래
01B_F006	0:31:55	0:44:27	0:12:32	박문수를 가르쳐 준 신동들
02A_F007	0:22:37	0:22:37	0:00:00	세 대통의 예언
02B_F008	0:43:15	0:47:13	0:03:58	쟁기·가래·소시랑
02B_F009	0:47:17	1:00:04	0:12:47	산삼과 대망
03A_F010	0:00:26	0:04:11	0:03:46	회덕 송씨네 망두석
03A_F011	0:06:16	0:12:32	0:06:15	명씨의 유래
04A_F012	0:00:31	0:05:48	0:05:17	송우암과 허미수
04A_F001	0:10:45	0:12:01	0:01:17	논매기노래 (1)
04A_F002	0:13:29	0:14:54	0:01:25	밭매기 노래
04A_F003	0:16:16	0:17:47	0:01:31	논매기노래 (2)
04B_F013	0:50:24	0:56:14	0:05:50	산송판결
04B_F014	0:56:29	1:00:12	0:03:43	상가승무노인탄
05A_F004	0:00:20	0:02:42	0:02:22	댕기타령
05A_F015	0:06:45	0:27:35	0:20:50	정승딸 얻은 노총각
05B_F016	0:37:17	0:49:35	0:12:18	장한영을 살린 금낭
06A_F017	0:00:10	0:05:49	0:05:38	박문수의 효부 표창
06A_F018	0:06:13	0:10:05	0:03:52	사신을 물리친 김시습
06A_F019	0:10:09	0:13:29	0:03:19	정승날 자리 왕이 날 자리
06A_F020	0:13:42	0:19:15	0:05:33	금시발복
06B_F021	0:31:28	0:38:34	0:07:07	개가 둔갑하여 며느리를 죽이다
06B_F022	0:39:01	0:58:08	0:19:06	며느리의 시어머니 교육
07A_F023	0:00:39	0:09:34	0:08:55	오한영 부부의 장난
07A_F024	0:12:01	0:37:37	0:25:36	최치원담
07B_F025	0:40:10	0:46:58	0:06:48	저절로 벌어지는 밤송이
08A_F026	0:00:22	0:09:22	0:08:59	억센 신부 길들이기
08A_F027	0:09:59	0:17:50	0:07:52	무식한 아들의 수업
08A_M005	0:20:00	0:22:00	0:02:00	성주풀이
08A_M006	0:23:47	0:25:30	0:01:43	길군악
08B_M007	0:40:26	0:41:13	0:00:48	논매기노래 (3)
08B_M008	0:41:37	0:42:49	0:01:11	모심기노래 (1)
09A_F028	0:00:16	0:07:52	0:07:36	선생님 장가들이기
09A_F001	0:13:08	0:14:37	0:01:29	모심기노래 (2)
09A_F029	0:18:58	0:20:23	0:01:25	먹보와 장사와 건망이
09B_F010	0:20:54	0:20:54	0:00:00	어사용
09B_F011	0:26:26	0:31:12	0:04:45	망개노래
09B_F012	0:31:31	0:32:44	0:01:12	담넘세
09B_F013	0:33:52	0:36:43	0:02:51	염불타령
09B_F014	0:44:47	0:59:52	0:15:05	강남땅 강소제
10A_F030	0:00:21	0:03:11	0:02:49	언문 문장

10A_F031	0:04:37	0:07:44	0:03:07	효자 효부
10A_F032	0:17:02	0:18:19	0:01:16	양반은 사람이 아냐
10A_F033	0:18:39	0:27:30	0:08:51	우연으로 명의가 된 선비
10B_F034	0:31:20	0:35:56	0:04:36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10B_F035	0:36:12	0:43:32	0:07:20	박문수담
10B_F036	0:44:43	0:50:04	0:05:21	원수 갚은 명소지
11A_F037	0:11:58	0:16:14	0:04:16	효부로 된 불효부
11A_F038	0:22:29	0:30:37	0:08:07	학이 종을 쳐서
11B_F039	0:36:26	0:43:40	0:07:14	용단호장
11B_F040	0:44:35	0:48:29	0:03:55	바보 원님을 속인 이방
11B_F041	0:48:38	0:50:40	0:02:02	대신 잡은 호랑이 꼬리
12A_M015	0:03:42	0:05:42	0:02:00	닐리리타령
12A_M016	0:06:18	0:22:30	0:16:12	강남땅 강소제
12A_M017	0:22:41	0:25:39	0:02:58	각서리 타령
12A_M018	0:25:44	0:26:55	0:01:12	간다간다 내가 돌아간다
12A_M019	0:28:36	0:30:42	0:02:06	모심기노래 (3)
13B_F001	0:50:15	0:52:38	0:02:22	가오리 유래
13B_F002	0:52:53	0:53:39	0:00:46	번동의 유래

※ 작성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 인문정보학연구실(2003)

참고문헌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古典文學硏究』 18집, 2000, 115~148쪽.

金泰坤, 「巫歌 資料 蒐集의 現況 檢討」. 『口碑文學』 1집, 1979, 50~64쪽.

李睟光, 『芝峰類說』. 서울: 景仁文化社 影印, 1970.

徐大錫, 「調査의 計劃과 經過」. 『口碑文學』 6집, 1981, 99~106쪽.

李衡祥, 『甁窩全書』. 성남: 韓國精神文化硏究院 影印, 1980.

印權煥, 「3. 민요: 3.2. 민요 자료 수집 상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口碑文學調査方法』.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82~92쪽.

趙東一, 「'전국 구비문학 조사연구'의 경위와 성과」. 『口碑文學』 9집, 1990, 5~10쪽.

曹喜雄, 「2. 설화: 2.2. 설화 자료 수집 상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口碑文學調査方法』.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52~65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口碑文學調査方法』.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韓國口碑文學大系』.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韓國口碑文學大系』 음성자료 · 도봉_1~40.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국 문 요 약

1979년에 시작된 우리의 구비문학 조사 사업은 1988년에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 82권을, 1989년에 설화 자료에 따른 부록 2권을, 1992년에 민요·무가 자료에 따른 부록 1권을 출간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본편을 집성하는 데 활용되었던 음성자료 전체를 『한국구비문학대계』 본편과 구별되는 독립적 기록물로 재편하여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이 남았다. 미전사 음성자료를 새롭게 조사하고 전사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 보유편을 집성하는 작업도 남았다. 실제로 『한국구비문학대계』 1-1을 집성하는 데 활용된 녹음테이프 40개 가운데 문자로 전사되어 본편에 반영된 음성자료는 모두 28시간 30분 가량이다. 나머지 11시간 30분 가량은 미전사 부분으로 남았다. 여기서 다시 잡음과 공백을 모두 제외하고 순전히 유효한 성분만 가려서 얻을 수 있는 미전사 부분은 적어도 5시간 분량이다. 비율은 전체의 1.25할에 이른다. 이것을 평균치로 잡아 추산해 보건대, 82권의 본편에 대하여 적어도 10권의 보유편을 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투고일 : 2008. 12. 26. ◉ 게재확정일 : 2009. 2. 26.

◉ 주제어(keyword) : 『한국 구비문학 대계』(*An Outline of Korean Oral Literature*), 미전사 음성자료(non-transcription-based audio materials), 한국 구전 설화(Korean oral folk tale), 한국 구전 민요(Korean oral folk song).